

# 한국언어정보학회

Korean Society for Language and Information

소 식 제 18 호 (1999년 3월)

KSLI Newsletter No 18, March 1999

발행인: 최재웅

편집인: 김종복

발행처: 한국언어정보학회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영어영문학과내

전화: 02-961-0892/0211 전송: 02-959-9018 e-mail: jongbok@nms.kyunghee.ac.kr

## 새 회장단 구성

1999년 1월 29일 운영위원회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새 회장과 총무, 편집인이 선출되어 앞으로 2년간 학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 회장: 최재웅 교수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전화: 02-3290-2172 (O), 0342-717-9808 (H), email: jchoe@mail.korea.ac.kr
- ▶ 총무: 김종복 교수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전화: 02-961-0892 (O), 02-966-8336 (H), email: jongbok@nms.kyunghee.ac.kr
- ▶ 편집: 노용균 교수 (충남대학교 언어학과)  
전화: 042-821-6394 (O), 042-486-2540 (H), email: ynoling@hanbat.chungnam.ac.kr

앞으로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도움을 바라며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전임 조선대 이영현 회장님, 한국외국어대 채희락 총무님, 인하대 이현우 편집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신임 회장님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제가 회장으로 선출되어 노용균, 김종복 두분 선생님과 함께 2001년 2월까지 학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장직을 맡게 되면서 잠시 학회의 역사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1979년에 중앙대의 교수 연구실에서 초창기 회원 몇 분이 정기적으로 모여 공부하게 된 것이 우리 학회의 첫 출발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 회원들이 아직도 학회의 주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실뿐더러, 새로 학회에 참여하는 신진학자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학회의 구성이 다양화, 다변화 되어왔고, 모임의 형태도 여건에 맞게 조금씩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학회 결성 초기부터 국제적인 학술교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몇 년 전부터는 PACLIC 정기모임으로 정착되었고, 최근에는 지방화/전국화/전산화의 기치아래 소식지 및 학술지도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20년의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져 온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규모 학술 집단으로서의 전문성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즉 고차적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꾸준히 정진해 나가는 모습은 비슷한 규모의 타 학회에 모범이 되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집행부의 임무 역시 이러한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기적인 월례발표회, PACLIC을 통한 국제교류, 그리고 학술지와 소식지의 지속적인 발간 등, 그 동안 계속 축적 발전되어온 학회 활동의 기본 형식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리 학회가 직면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을 도모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정도를 말씀드려 보자면, 하나는 학회 학술지 [언어와 정보]의 학술진흥재단 등록을 준비하는 일이 되겠고, 다른 하나는 회원들의 학회 소속감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언어와 정보]의 등록문제는 대략 파악해본 바로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만, 학술진흥재단에서 제시하는 양적 질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학술진흥재단의 기준이 대체로 학회의 활동이 어느 정도 적극적이냐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히 학회 회원 여러분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일이 진행되는 사항을 소식지 등을 통해 수시로 보고 드리겠으니, 여러 회원께서도 각별한 관심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학회가 연륜에 비해 회원수도 적고 회원간의 결속이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말씀이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전문화된 소규모 학회가 모두 직면하는 문제점은 전문성과 회원수가 반비례관계에 있다는 점이 아닌가 합니다. 즉, 전문성을 강조할수록 참여회원의 폭이 급격히 좁아지게 됩니다. 그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참여회원의 숫자보다는 학술적 전문성이 좀 더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쪽의 의견에 다소 비중이 실렸다는 느낌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입 회원의 확보나 기존 회원들간의 교류 등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며, 새 집행부는 그러한 면에 관심을 두고자 합니다. 주로 학회 소식지 및 현재 구축중인 웹페이지를 활용하여 회원들간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학회 임원을 늘려서라도 이 일에 좀 더 적극성을 보이겠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학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전임 회장님들을 비롯하여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현 집행부를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말씀 더하자면, 저로서는 가장 애착이 가는 학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두르지는 아니하되, 여러 여건과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학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의 꾸짖음과 격려의 말씀 항상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9년 3월 5일 최 재 응

## ㉞ 연구 발표 논문 모집

올해 8월초에 발간할 예정인 [언어와 정보] 제 3권 제 1호에 실을 원고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이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학기 연구발표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하시거나 주변에서 추천할 만한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총무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㉞ 구구조문법연구회

99년도 1학기부터 본 학회 산하 '구구조문법연구회'가 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언어정보학회

연구회와 2주 간격 (4월 3일, 5월 1일, 5월 29일, 6월 26일)으로 대우재단에서 개최되며 구구조문법 (특히 HPSG) 관련 최신 논문들을 주제별로 강독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특히 대학원생들에게 최신의 논문과 활발한 토론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일정표는 추후 공고하겠습니다.

## ☐ 1999 LSA Summer Institute

University of Illinois에서 개최되는 정기 99년 미국언어학회 여름학교에서 장석진(서울대), 이기용(고려대) 교수님께서 각각 강의하십니다. 담당과목의 강의 제목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강의제목 및 기간: 장석진 - "Korean Pragmatics" (July 19-30: 2 week course)
- 이기용 - "Korean Semantics" (July 5-16: 2 week course)

## ☐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

LSA 여름학교와 병행하여 한국어언어학에 관련된 학회인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가 7월 23-24일까지 개최됩니다. 논문 초록마감은 4월 15일이며 초록은 Illinois대학의 James Yoon (jyoon@uiuc.edu) 선생님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Call for Paper의 구체적인 내용은 LSA Website[<http://www.lsadc.org>.]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 국내외 언어학 동향

편집자 주: 금번 호부터 국내외 학술동향을 알리고 또한 회원이나 관련학자의 근황을 소개하는 글을 정기적으로 소식지에 실을 계획입니다. 이번 호에는 현재 미국 UCLA에 체류중이신 이정민 선생님의 글을 실습니다. 좋은 글을 작성해주신 이정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최근 의미론의 이모저모

이정민 (서울대/UCLA)

형식의미론이 속성상 자칫 Boole 연산 등 명제 사이의 관계나 영향권 관계, 묶기(binding) 관계 등 주로 관계에 관한 주제에 한정되기 쉬운 경향이 있는데, 이번 모처럼 실체적인(substantive) 측면의 의미를 다루는 어휘 의미론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논항 구조에 관한 회의가 Austin의 Texas대에서 3월 5, 6, 7 사흘간 열려 참여했다. Pustejovsky가 Verb Meaning: Inheriting the Properties of Arguments라는 제목으로 고전적 Montague 의미론의 단조로운 유형화 모형의 난점을 극복하는 자신의 생성어휘부(generative lexicon) 이론을 내세웠다. 존재론적으로 사물을 모형화하기 위해 자연유형과 함수유형을 가르고 나아가 소위 dot 대상물의 복합유형을 제안하고 이를 복합사건에도 적용했다. 동사가 선택하는 논항들의 주요의미가 동사에 승계되어 상(aspect)의 전이를 가져오고 다의성을 유발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심리학자인 Tanenhaus가 논항구조의 통사-의미론적 측면이 실시간 언어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으로 밝혔다. Processing과 관련해 특히 Levin의 internal, external causation 구별이 별 의의가 없다는 실험을 심리학자 McKoon이 보였다. 또한 그 구별을 반

박하는 논문을 Pyllkaenen이 Finland어 예를 들어 발표하기도 했다. 힌두어는 이동과 관련된 몇 개 자동사만 끝점 표현과 어울리는 점에서 한국어와 같음이 드러났다 (집에 갔다/\*집에 뛰었다). ‘놓다,’ ‘담다,’ ‘채우다’와 같은 한국어 이동타동사의 event headedness 의미 미명세(underspecification)에 관해 본인, 강범모, 남승호, 김윤신의 공동논문을 본인과 김윤신이 발표해 Krifka와 Pustejovsky의 질문을 받았다.

2월의 SALT9에서는 Krifka의 ‘Quantifying into Question Acts’와 Gronendijk의 ‘The Logic of Interrogations’와 de Swart, Parsons, Hobbs, Levin의 논문이 invited로 발표됐다. Reciprocal, intensional choice function, disjunction and free choice, bare NPs and number marking, scalar structure underlies telicity in degree achievements 등이 발표됐다.

1월초 LSA meeting(LA)의 의미론 session에서는 일본어 -mo, 이은희의 ‘놓다’와 ‘두다’의 dynamic and stative information in temporal reasoning, 위혜경의 Not narrow focus, but definite focus, 기타 modal, temporal-coherence, 간접인용으로서의 명제태도, ‘Only’와 conservativity 등이 발표되고, 위혜경의 definiteness 주장에 Buering이 반박하는 질문을 했다. 의미론-화용론에서는 전제, Identifier ‘so,’ scalar particles and scalar endpoints, A semantic approach to centering, either/or propositions, Bare singular NPs as generic expressions, implicit arguments, Focus in Manding이 발표되고, syntax-semantics에서 박혜선의 specificity & mapping hypothesis in Korean DP, Oehlerle의 conjunction without syntactic polymorphism, 기타 focus, Q-movement, imperative내의 scope 등이 발표됐다. Negation session에서는 Larry Horn, 본인 등이 발표했다.

BLS에서는 김종복, 정찬이 발표한 것으로 나와 있다. 작년 10월말에는 영국 Salford대에서 국제 Negation 회의가 열려 부정과 부정극어 연구자들이 모였다. Ramchand, N. Smith, I. Roberts, Paine, Peres, Giannakidou, Borsley, Tovenar와 Jayez, Fukushima, 남승호, 이혜경, 본인이 발표했다. L&P 최근호에는 노은주의 echo question이 나왔다.

ESSLLI는 화란 학자들의 무대이고, 특히 dynamic semantics가 번지는 인상을 준다. 그러한 인상은 작년 대만에서 열린 ITALLC (종래의 situation theory) 회의(본인도 Num CI 발표)에서도 두드러져, 다음 번 ITALLC는 더욱 화란 판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오갔다. 미국에서 이번에 통사론보다는 의미론 신입 교수 채용이 많아졌는데, job interview에서도 이런 경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올 정도다. UCLA에서 1년 임시로 의미론을 가르치는 M. Honcoop도 화란인으로서 dynamic semantics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다. 미국내의 이번 의미론 응모자들 중 10명은 대단히 우수해 누굴 뽑아야 할지 고민이라는 것이 Ed Keenan, Greg Carlson 등의 호소다. 의미론 자리가 느는 인상을 주고, 또 종래 UMass 독무대이던 것이 이번 우수 응모자 판도가 널리 퍼지고 있다는 특징이 드러난다. 그리고 참고로, 미국대학들은 좋은 학생을 대학원에 끌어들이기 위해 얼마나 경쟁을 벌이는가를 목격했다. 이번에 서울대 언어학과 여학생 응모자 하나를 두고 UCLA, MIT, Stanford, Illinois, U of Maryland, Cornell, SUNY Buffalo에서 명교수들이 국제전화, e-mail 등으로 최상(5년보장)의 장학금 offer를 알리면서 끌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나를 만나면 조르다시피 해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됐다(또 중어학과 언어학을 한 다른 여학생 하나를 놓고서는 USC와 UCI가 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발로 걸어들어온 젊은 우수교수도 인사공정성을 주장하거나, 자꾸 열심히 발표하러 나가려 하거나 해서 고약한 기존세력의 비위를 거슬리면, 사표를 내도록 강요당하는 분위기이니, 어느 세월에 달라질지 걱정이지만, 우리가 다같이 피나게 노력해야 할 일이다.

이상 밖에서 단편적으로나마 보고들은 것을 적었다. 최근 경향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게 되면 다행이겠다.

## ㉠ 회원소식

- ▶ 고려대 언어학과 이기용 교수님께서 1년 동안 일본 천리대학 조선학과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귀국하셨으며 [전산형태론](고려대 출판부)을 새로이 펴내셨습니다.
- ▶ 경희대 영어영문학과 박병수 교수님께서 지난 제 13차 PACLIC (2.10-12, 대만)에서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논문제목: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with a Possessive Specifier Gap: A Constraint-Based Approach
- ▶ 연세대 이익환 교수님께서 지난 제 13차 PACLIC (2.10-12, 대만)에서 양단희, 송만석 선생님과 함께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논문제목: Extraction of Simple Sentences from Mixed Sentences for Building Korean Case Frames.
- ▶ 동서대 정찬 교수님과 경희대 김종복 교수님께서 제25차 BLS에 발표하셨습니다. 논문 제목은 각각 Complex noun, multiple inheritance, and internally headed relative clause in Korean과 A local treatment of nonlocal reactivization
- ▶ 축하드립니다: 언어정보학회의 많은 회원 분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 윤재학 선생님: 경희대 수원캠퍼스 영어영문학과 전임
  - 곽은주 선생님: 세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임
  - 김수연 선생님: 세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임
  - 정대호 선생님: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임

## ㉡ 회원주소록 정정 및 주소록 배포 계획

새로운 주소록을 작성하여 4월중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주소 (email 및 homepage 주소)에 첨가 사항이나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leri@nms.kyunghee.ac.kr](mailto:leri@nms.kyunghee.ac.kr)이나 961-0211로 연락 주십시오.

## ㉢ [언어와 정보] 2권 2호 발간

우리 학회지 [언어와 정보](ISSN:1226-7430) 2권 2호 (1999년 2월 12일 발행)가 출판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에게는 3월 20일 첫 모임에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추가 구입도 가능합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문화사 (전화: 02-464-7708)로 문의바랍니다. 각 학교의 도서관이나 관련 학과에서 이 책을 구비해 놓을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회원 가입 및 학회비 납부 안내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총무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당 학회비는 일반회원이 15,000원이며 학생회원은 3,000원입니다. 학회비는 발표회 모임에서 직접 내시든지 은행 계좌로 간사에게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예금주: 유은정, 계좌번호: 012336-0069810, 경희대 서울 우체국)

## ㉔ 3월 20일 발표자 논문 초록

### 한국어 다의술어 의미기술에서의 미명세 Underspecification for polysemous predicates in Korean 이정민(서울대), 남승호(서울대), 강범모(고려대)

이 논문은 한국어의 여러 술어가 드러내는 다의현상을 유형화하여 기술하고, 다의현상을 어휘 의미해석의 생성적 이론으로 형식화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Pustejovsky (1995)을 비롯한 어휘의미기술의 형식적 틀을 수정, 확대하고 발전시킨다. Pustejovsky의 생성어휘부 이론(The Generative Lexicon theory)에 따르면, 다의어(polysemy)가 드러내는 여러 의미는, 하나의 기본의미에서 쓰임의 맥락이나 통사구조에 의해 생성적으로 도출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의미확장을 설명하기 위해 어휘의 의미구조를 <사건구조> event-structure, <논항구조> argument-structure, <특질구조> qualia-structure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 구조의 형식적 틀을 이용하여 다의현상을 설명한다. 이 가운데 <사건구조>는 술어가 가리키는 사건을 그 상적 특성 (aspectual character)에 주목하여 기술하는 부분이다. <사건구조>가 단순유형이 아닌 복합유형일 때는 두 하위사건의 결합으로 기술된다. (기본 사건유형에는 “과정”(process), “상태”(state), “전이”(transition) 등이 있다.)

이 논문은 한국어의 다의술어들 가운데, 특히 <사건구조>의 틀을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는 술어들을 유형화하고, 이들의 다의성을 미명세(underspecification) 방법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사건구조>에서의 미명세 방법이란, 한 복합사건에서 “두드러진” 하위사건에 부여되는 “중점”(HEAD) 값을 미명세함으로써 두 개 이상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는 동사 sink가 문맥에 따라 causative와 unaccusative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Pustejovsky는 이러한 다의현상을 중점-미명세 방법으로 설명한다.

- (i) The enemy sank the boat. (causative)
- (ii) The boat sank. (unaccusative)

본 논문은 다의현상을 더욱 폭넓게 다루기 위해, 문맥에 의한 다의현상 뿐만 아니라, 격교체(case alternation)나 논항구조의 변화를 수반하는 다의현상을 포괄하여 다룬다. 따라서 하나의 다의술어가 두 개 이상의 격틀(case frame)로 실현되고 격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때, 미명세된 중점값(HEAD-value)이 명세되는 방식에 따라 각 격틀이 결정되도록 하며, 또한 각 격틀에 대응하는 의미를 동시에 포착하도록 한다. 특히 다양한 다의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미명세 방법을 “전체/부분 미명세”로 확장하여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한국어 다의술어의 유형과 해당 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채우다” 부류 [locative-alternation, affectedness]
  - 가. 철수가 약수물로 병을 채웠다.
  - 나. 철수가 병에 약수물을 채웠다.
  - 다. 약수물이 병을 가득 채웠다.
2. “쌓다” 부류 [creation vs. direct-causative]
  - 가. 철수가 돌로 담을 쌓았다.
  - 나. 철수가 돌을 쌓았다.
3. “위험하다” 부류 [stage-level vs. individual-level]
  - 가. 철수가 위험하다.
  - 나. 이 장난감은 위험하다.
4. “시끄럽다” 부류 [stage-level: source vs. location]
  - 가. 아이들이 시끄럽다.
  - 나. 교실이 시끄럽다.

5. “입다” 부류 [process vs. result-state]  
 가. 탈의실에서 새 옷을 입었다.  
 나. 하루종일 새 옷을 입었다.

**Bayer, Samuel et al. 1998. Theoretical and computational linguistics: toward a mutual understanding, In: J. Lawler & H. A. Dry (ed.). Using Computers in Linguistics, Ch. 8. 197-255. London: Routledge.**

**강평자: 이민행 (연세대)**

강독 논문에서, 저자들은 코퍼스 기반 전산언어학의 연구방법론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방법론은, 4단계 패러다임 (Four-step Paradigm) 이라 불리는 이론으로서, 코퍼스 기반 전산언어학에 규칙기반 연구방법을 접목시킨 일종의 통합적인 접근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본격적이고 핵심적인 논의는, 4단계 패러다임의 특성이 소개되고 이 틀에 의한 구체적인 언어분석 절차가 제시됨으로써, 소절 8.4에서 비로소 이루어진다. 그러나, 코퍼스 언어학이 어떻게 생성되고 진화되어 왔는지, 또한 기계적인 언어분석의 평가방법은 어디까지 발전되어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고 있는 소절 8.2와 8.3도 읽어볼 만 하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이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언어학적인 전통에서 볼 때, 경험주의적 언어학에 그 맥이 닿는 코퍼스기반 언어학 연구방법론과, 합리주의적 언어학에 그 맥이 이어져 있는 규칙기반 언어학 연구방법론이 상호경쟁적인 계열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통합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강평에 이어서, 이제까지 살펴본 통합적인 전산언어학의 정신과 그 흐름을 같이하는, 강평자 자신의 합성어에 최근의 연구결과 “독일어 어휘부에 대한 연구 - 전산언어학적인 접근”를 10여분 내에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Scalar Implicature in Dynamic Semantics**

**이예식 (경북대학교)**

본 발표에서는 단계함축 (scalar implicature)을 역동의미론 (dynamic/update semantics: Chierchia 1995, Veltman 1993, Heim 1982)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논의 해보고자한다. 특히, (1b)와 같은 단계함축의 취소(defeasibility)를 어떻게 취급해야할지 논의하고자 한다.

- (1) a. She has two cars.  
 a'. It is consistent with the information state that she doesn't have more than two cars.  
 b. She has two cars. In fact, she has three cars.  
 ⇒ (1a')

역동의미론에서는 의미란 대화자의 정보상태 (information state)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potential)이라 보고 있다. 의미에 대한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한 역동의미론에서의 의미

계산은 표현들의 순서에 민감하며 (order sensitive), 한 번 추가된 정보/의미는 절대 취소시킬 수 없는 논리체계 (monotonic logic)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의미론으로는 단계함축의 취소와 같은 현상을 다룰 수 없다. 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역동의미론을 이미 추가된 정보도 수정할 수 있는 더 강력한 형태의 역동의미론의 틀로 전환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단계함축에 의한 정보를 보통의 표현(normal assertion)에 의한 의미와는 다른 유형의 의미로 보고자한다. 단계함축은 대체로 화용적 원리인 Grice의 양의 격률 (maxim of quantity)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이렇게 화용적 추론에 의해서 얻어진 정보는 직접 주장된 (asserted) 정보와는 달리 취급해야하고 대화자의 정보상태에도 각각 달리 저장되어야한다. 종래의 역동의미론에서는 정보 상태를 단순 구조인 가능세계의 집합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여기서는 두 부분의 가능세계의 집합으로 구조화 된 것으로 본다. 즉 대화자의 정보 상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igma = \langle FK, DK \rangle$ , FK는 주장된 사실로 이루어진 정보를, DK는 주장된 사실로부터 화용적으로 추론해낸 정보를 각각 의미한다. 이들 두 정보는 항상 양립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와 같은 양립성 제약에 의해 DK의 정보를 수정, 양립할 수 있게 한다.

(2) **양립성 제약:**

For an information state  $\sigma = \langle FK, DK \rangle$ , where  $FK \cap DK \neq \emptyset$ , and proposition  $p$ , if  $\sigma + p$  (an update of FK with proposition  $p$ ) results in  $FK \cap DK = \emptyset$ , then the updated information state  $\sigma'$  should look like  $\langle FK \cap p, DK \cup \{w: w(p)=1\} \rangle$ . Otherwise, the resulting information state  $\sigma'$  would be absurd.

이 양립성 제약이 이미 추가된 정보의 취소를 가능하게 한다. 한편, 주장된 명제와 화용적으로 유추된 명제에 의한 정보상태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3) a. if  $p$  is asserted, then  $\sigma + p = \langle \{w \in FK: w(p) = 1\}, DK \rangle$ ;
- b. if  $p$  is pragmatically inferred, then  $\sigma + p = \langle FK, \{w \in DK: w(p) = 1\} \rangle$

**참고문헌**

Chierchia, G. 1995: *Dynamics of Mean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eim, I. 1982: *On the Semantics of Definite and Indefinite Noun Phrases*, Ph.D. Dissertation, U. of Amherst.  
 Veltman, F. 1993: Defaults in Update Semantics, to appear.

# 한국언어정보학회

## <1999학년도 제1학기 연구 발표 계획>

장소: 대우재단 빌딩 (서울역 앞 대우 빌딩 뒤) 세미나실

(OHP가 필요하신 발표자께서는 미리 총무에게 연락해주시요.)

날 짜	시 간	발표자	발 표 및 강 독	사 회
3월 20일 (토)	9:30-10:40	이정민(서울대), 남승호(서울대), 강범모(고려대)	Underspecification for Polysemous Predicates in Korean	김종복
	휴식(10분)			
	10:50-11:30	이민행 (연세대)	강독: Bayer, Samuel et al. 1998.	김종복
11:30-12:10	이예식 (경북대)	Scalar Implicature in Dynamic Semantics		
4월 17일 (토)	9:30-10:10	윤영은 (이화여대)	PS and FC: 'amurato' and 'amuna'	노용균
	10:10-10:50	홍기선 (서울대)	논항의 판별기준	
	휴식(10분)			
	11:00-11:40	정소우 (성신여대)	종속절 시제 해석 규칙	노용균
	11:40-12:20	김종복 (경희대)	Getting the Do-support Effect without Do-support	
5월 15일 (토)	9:30-10:40	이현우 (인하대)	The Syntax and Semantics of <i>selo</i>	채희락
	휴식(10분)			
	10:50-11:30	박병수 (경희대)	Argument Structure of Korean Adjectives	채희락
	11:30-12:10	윤재학 (경희대)	TBA	
6월 12일 (토)	9:30-10:40	장석진 (서울대)	Where Grammar Meets Pragmatics: A Constraint-based Approach to Discourse	이민행
	휴식(10분)			
	10:50-11:30	채희락 (한국외대)	TBA	이민행
11:30-12:10	문승철 (항공대)	TBA		